

평균 구중이 높아졌다. 춘파의 구중은 파종시기가 늦을수록 낮았고, 2월 23일 춘파의 단구중과 상품성 단구중은 10월 26일의 추파보다 높았는데, 통계적으로도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이와 같은 결과는 구중은 조기파종으로 증가되고 파종이 늦어질수록 감소되며, 4월 5일 이후의 춘파는 구중이 현저히 낮아졌다는 Kim(1983), Lim *et al.*(1987), Ra *et al.*(1987) 및 Hwang(2008) 보고와 비슷한 경향이였다.

무게별로 단구의 구중 분포를 보면(Fig. 7), 한지형(단양종)의 단구중은 대부분 10 g 이하였고, 중간형(DL01)과 난지형(대서종)은 10 g 이상의 구중이 한지형(단양종)보다 많았는데, 파종시기에 따라 다른 경향이였다.

중간형(DL01)은 10월 26일 추파 시 20 g 이상의 대구 분포가 많은 반면, 난지형(대서종)은 대부분이 10 g 이하의 단구 분포를 보였다. 중간형(DL01)은 2월 23일의 춘파 시 10 g 이하, 10~15 g, 15~20 g 및 20 g 이상의 구중 비율이 고르게 분포되었다. 난지형(대서종)은 10 g 이하와 20 g 이상의 비율이 많은 분포를 보였고, 3월 16일 이후의 춘파와 10월 26일의 추파에서 10 g 이하의 구중 비율이 높아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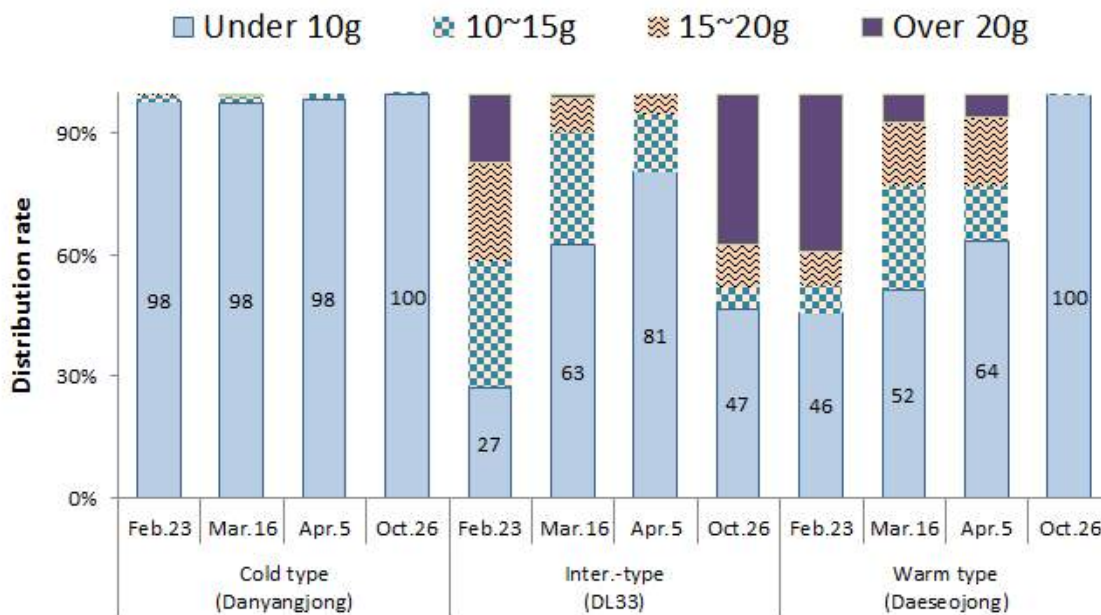


Fig. 7. Effects of ecotypes and planting dates on the distribution rate of bulb weight in spring cultivation of garlic

생태형 및 파종시기에 따른 단구형성의 정도는 Table 23과 같다. 생태형에 따른 10a당 수확 개체수는 한지형(단양종)이 31.3천개/10a로 가장 많았고, 중간형(DL01)은 난지형(대서종)보다 많았는데, 출현율과 월동율의 차이에 의한 결과로 판단되었다. 단구의 총개수와 상품성 단구의 개수는 중간형(DL01)이 각각 20.5천개/10a, 11.4천개/10a로 월등히 많은 반면, 단구형성율이 저조하였던 한지형(단양종)과 중간형(DL01)은 적었다.

이러한 결과는 단양마늘을 추파하면 수확주율이 61~71%였고, 춘파하면 53~62%였으며, 남도마늘은 추파가 53~70%였고, 춘파가 27~31%로 춘파보다는 추파가 높았고, 단양마늘이 남도마늘보다 높았다(Ahn *et al.*, 2010)는 보고와 비슷한 경향이였다.